논제 : 푸드트럭을 합법화 해야 한다.

 1506 김우영

나는 이러한 푸드트럭 합법화에대해 반대한다.
푸드트럭 합법화를 하여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경제 관료들은 대형 유통업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전체 일자리 중 유통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8.5%에서 2011년에는 15%로 추락하였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이다. 푸드트럭도 마찬가지로 푸드트럭 창업이 늘게되면 다른 음식점 폐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또다른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푸드트럭의 위생과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틋넉의 특성상 최소의 설비만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배기가스 배출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푸드트럭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한 방안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푸드트럭 제조사만 배를 불리는 규제허용이 될 것이다.

 기존 상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푸드트럭이 허용될 경우, 인근 가게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월세와 보증금에 세금까지 내고 영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푸드트럭이 손님을 뺏어간다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인데, 유독 푸드트럭만 합법으로 허용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일부 유원지에서만 푸드트럭을 허용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미 유원지나 놀이공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어, 추가로 푸드트럭이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견해가 많다.